오텍 067170 · KOSDAQ

AI 데이터센터 열관리, 오텍캐리어가 레퍼런스를 쌓는다

AI 시대의 병목은 전력과 열이다. 자회사 오텍캐리어는 부산 데이터센터 냉동기 수주(2025.12)에 이어 수도권 48MW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냉각 공급사로 선정(2026.8)되고, 구미 200MW AI 데이터센터 냉각설비 우선협상대상자(2026.10)가 되며 국내 데이터센터 열관리 레퍼런스를 빠르게 쌓고 있다. 아직 실적에는 반영되기 전이지만, 가정용 에어컨 회사에서 AI 인프라 열관리 기업으로 바뀌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POINT 01

AI의 다음 병목은 열

AI 서버는 발열이 커서 공기 냉각에서 액체 냉각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데이터센터가 커질수록 냉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가 되고, 오텍캐리어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

POINT 02

1년 새 쌓인 국내 데이터센터 레퍼런스 3건

부산 데이터센터 냉동기 수주(2025.12), 수도권 48MW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냉각 공급사 선정(2026.8), 구미 200MW AI 데이터센터 냉각설비 우선협상대상자(2026.10). 프로젝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POINT 03

칩에서 칠러까지, 엔비디아가 인증한 기술

글로벌 캐리어의 CDU(냉각수 분배장치) '65LL'이 2026년 엔비디아 'AI Factory Infrastructure' 인증 제품으로 등록됐다. 오텍캐리어는 서버 칩부터 칠러 플랜트까지 잇는 'Chip to Chiller' 통합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한다

POINT 04

실적은 아직, 그래서 지금이 관전 포인트

1~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3.5억 원에 그쳤다. 데이터센터 수주가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실적 반전의 분기점이다

체크포인트

- 구미 200MW 데이터센터 본계약 체결 여부와 수주 금액
- 데이터센터 수주가 매출로 잡히는 시점(2027년 이후 가능성)
- 4분기 계절적 손실 반복 여부(2025년 4분기 약 -101.8억 원)
- BW 잔여 물량 467만 주의 오버행과 높은 부채비율

투자의견	Not Rated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음

최근 실적 (억 원)

매출액 (1~3Q26)	6,566
영업이익 (1~3Q26)	13.5
영업이익률 (1~3Q26)	0.2%

작성 정보

작성	에스투스퀘어 리서치팀
보유 여부	보유 없음
작성일	2026.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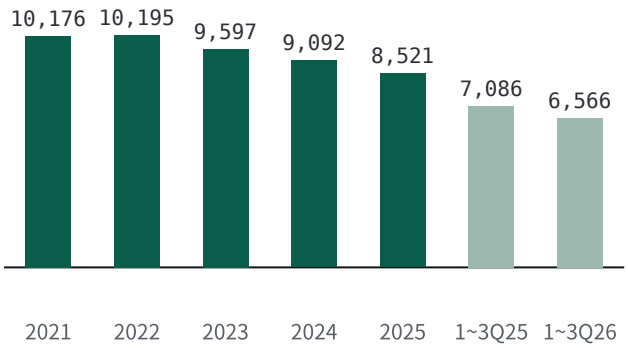
자료: 오텍 2023·2024·2025년 사업보고서, 2026년 반기보고서(2026.8.14)·3분기보고서(2026.11.16), DART

01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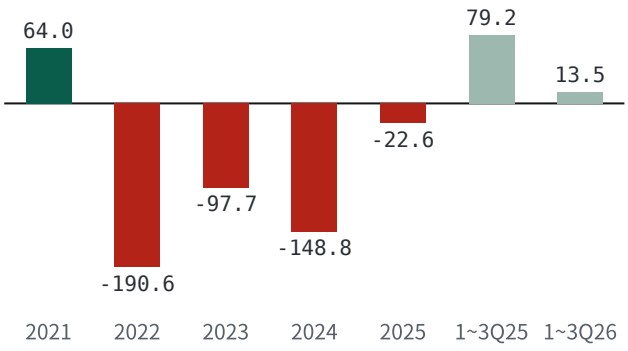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1~3Q25	1~3Q26
매출액	10,176	10,195	9,597	9,092	8,521	7,086	6,566
영업이익	64.0	-190.6	-97.7	-148.8	-22.6	79.2	13.5
영업이익률	0.6%	-1.9%	-1.0%	-1.6%	-0.3%	1.1%	0.2%
당기순이익	-1.2	-387.8	-206.9	-316.5	-79.6	30.2	-96.3

자료: 오텍 2023·2024·2025년 사업보고서, 2026년 3분기보고서(2026.11.16)

매출액 (억 원)



영업이익 (억 원)



연한 막대는 분기·누적 실적. 빨간색은 손실

02 미래 비전: 에어컨 회사에서 AI 열관리 기업으로

- AI 데이터센터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전력을 쓰고 그만큼 열을 낸다. 서버 랙 단위로 물을 돌려 식히는 액체 냉각과 대형 칠러가 함께 필요해지면서, 냉각 설비는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됨
- 오텍캐리어는 글로벌 냉동공조 기업 캐리어와의 기술 협력으로 CDU·칠러·공조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회사. 2000년대부터 금융·정부·통신 기관 데이터센터에 냉각 장비를 공급해 온 이력이 신뢰의 기반
- 48MW에서 200MW로, 레퍼런스의 크기가 커지고 있음. 구미 200MW 프로젝트 본계약까지 이어지면 국내 대형 AI 데이터센터 냉각의 대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됨
- 수주가 매출로 바뀌면 그림이 달라짐. 지금 실적은 가정용·상업용 공조 부진에 눌려 있지만, 데이터센터 냉각은 프로젝트 단위가 크고 유지보수 매출까지 이어지는 사업
- 본업이 4년 연속 영업적자였던 만큼, 데이터센터 매출이 실제로 잡히는 시점(2027년 이후 가능성)과 수익성이 투자 판단의 핵심

03 부문별 실적 (1~3분기 누적)

- 냉동·냉난방(오텍캐리어 등): 매출 5,501억 원(전년 6,014억 원, -8.5%), 영업이익 16.8억 원(전년 84.5억 원)
- 특수·특장차(오텍 본사): 매출 880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 완성차 기반 PBV 컨버전 사업이 2026년 상반기 양산 시작
- 주차설비: 매출 363억 원, 영업손실 -3.8억 원
- 데이터센터 수주가 아직 매출로 잡히기 전이고, 가정용·상업용 공조 부진이 이익을 끌어내림

04 숫자로 본 5년

- 연결 매출은 2021~2022년 1조 원대에서 2025년 8,521억 원으로 4년 연속 줄었고, 올해 1~3분기도 -7.3%로 감소가 이어짐
- 영업이익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적자(-190.6억, -97.7억, -148.8억, -22.6억 원). 2025년은 1~3분기 79.2억 원 흑자였지만 4분기에만 약 -101.8억 원 손실을 내며 연간 적자로 마감
- 올해 1~3분기 영업이익 13.5억 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아, 작년처럼 4분기 손실이 나오면 5년 연속 적자 가능성이 있음
- 순손실은 2022년 -387.8억, 2023년 -206.9억, 2024년 -316.5억, 2025년 -79.6억 원. 매년 영업손실보다 커서 금융원가 등 영업 외 비용 부담이 실적을 깎는 구조
- 이익잉여금은 2021년 말 1,090억 원에서 2025년 말 260억 원으로 줄었고, 자본총계는 1,929억 원에서 1,357억 원으로 감소

05 재무와 수급

- 2026.1.12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5억 원 발행, 행사가 1,881원
- 1~3분기 중 357.8만 주가 행사됐고, 미행사 잔액 97.9억 원(행사 가능 467만 주)이 남아 있음. 발행주식 2,747만 주의 약 17%
- 연결 부채 4,298억 원, 자본 1,535억 원으로 부채비율 약 280%. 3분기 금융원가 189억 원이 순손실의 주 원인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에스투스퀘어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배포합니다.
- 본 자료는 오텍로부터 작성 의뢰나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작성일 현재 작성자와 그 가족, 당사는 오텍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공표 후 30일 동안 해당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의견(Not Rated)과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